KiRi Weekly 2012.9.17

해외금융 뉴스
유럽

ECB 무제한 국채 매입(OMT)의 내용과 평가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유럽중앙은행(ECB)은 9월 6일 스페인,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조치를 발표
  - ECB가 국채 매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이대로 방치할 경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제2의 그리스가 되어 유로존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
  - 이번 국채 매입 프로그램은 기존 국채 매입(SMP: Securities Market Programme)보다 더 큰 정책적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 통화정책(OMT: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)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됨.
  - SMP는 만기에 관계없이 국채를 사들였으나 OMT는 유통시장에서 만기 1~3년 단기 국채만 매입함으로써 국채 금리의 조속한 안정을 목표로 함.

- ECB는 2010년 5월 처음으로 재정위기국 국채매입 프로그램(SMP)을 시행하여 2012년 2월에 중단한 바 있음.
  - ECB는 2010년 5월부터 국채를 수시로 매입하여 2012년 8월 말 현재 2,088억 유로에 달하는 회원국 국채를 보유
  - 2012년 2월 국채 매입 중단은 국채 매입이 시장 안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긴축 노력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

- OMT는 국채 매입 한도와 시점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국채가 디폴트 상황에 빠질 때 가장 먼저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ECB의 선순위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함.
  - 국채 매입 한도와 시점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스페인, 이탈리아 등의 국채 발행 금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사들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 위함임.

- ECB는 채권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는 민간 투자자들이 재정위기국 국채매입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 국채에 대한 선순위권을 포기함.

■ ECB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ECB 국채 매입을 희망할 경우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이나 유로안정화기구(ESM)에 먼저 요청하도록 하여 재정 감축과 경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유도

- ESM은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경우 재정긴축과 구조개혁 등 엄격한 전제조건을 부과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국채 매입을 신청하는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음.

■ 또한, 과도한 유동성 팽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불태화(sterilization) 정책도 시행하기로 함.

■ 그러나 일부에서는 OMT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옴.

- 유럽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채 매입 조치가 위기 대처 방안은 될 수 있지만 경기를 끌어올릴 여지는 적음.
  - 유로존은 높은 실업률과 기업 및 소비자의 낮은 신뢰지수, 성장 전망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부정적인 경기 흐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됨.
  - 게다가 ECB는 9월 6일 금융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지 않음.
- ING은행은 앞으로 3~6개월 동안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ECB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분석하였으며 자산운용사 HSBC 글로벌 에셋매니지먼트도 이번 조치로 장기적으로 유로존의 경기침체를 막을 수 없다고 평가

(Financial Times, Wall Street Journal 9/6)